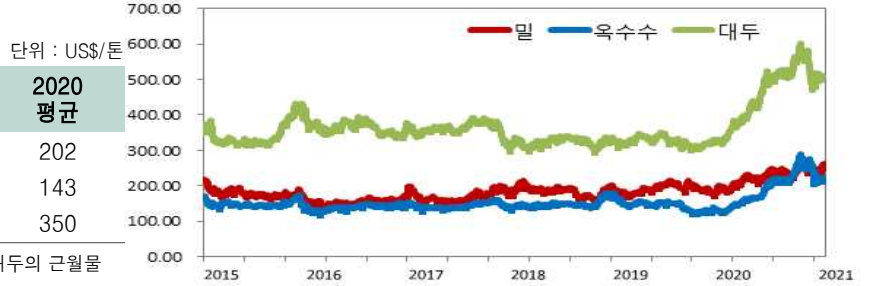


주요 곡물 선물가격,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가뭄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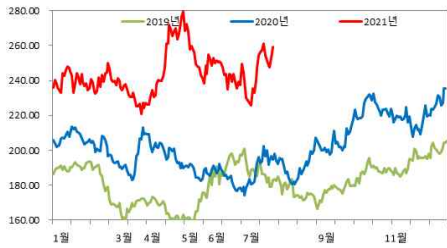
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구분	기준일 ('21.07.29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21.06)	2020 평균
밀	259.13	▲2.4%	245	202
옥수수	219.68	▲1.6%	250	143
대두	508.98	▲1.1%	529	3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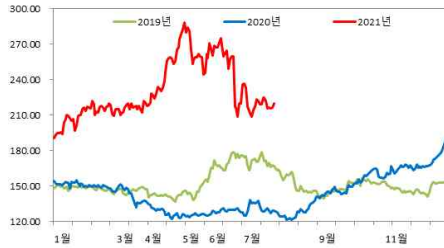

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 : 9월, 옥수수 : 9월, 대두 : 9월물) 정산가격임.

밀 선물시장 시황



옥수수 선물시장 시황



대두 선물시장 시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.4% 상승했다. 밀 선물가격은 연례 미국 농작물 투어 결과, 북부 평원 봄 밀 벨트의 가뭄 영향을 반영한 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부셸당 7달러 이상 상승했다. Wheat Quality Council의 연례 투어에 참가한 스카우트들은 노스다코타 남부와 중부의 봄 밀 평균 수확량이 에이커당 29.5부셀로 5년 평균인 43.3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. 미 농무부는 7월 22일에 마감한 2021/22 시즌 밀 수출량을 51만 5,200톤으로 보고했는데, 이는 35만~60만 톤의 시장 기대치와 일치한다. 미국 달러 화약세는 미국 곡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.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6% 상승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의 파급 강세와 북미 봄 밀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가뭄이 미국 옥수수 수확량 전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상승했다. 추운 기온에 대한 우려가 브라질 27작 옥수수에 타격을 입히면서 일부 수출 사업이 미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. 미 농무부는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에서 지난 7월 22일까지 11만 5,200톤의 구작 옥수수가 순 취소된 반면, 신작 옥수수의 순 판매량은 52만 9,300톤으로 무역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밝혔다.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1% 상승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밀의 파급 강세와 특히 중서부 지역의 농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건조한 환경에 대한 우려로 상승했다. 미 농무부는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에서 지난 7월 22일 한 주 동안 7만 9,200톤의 구작 대두가 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. 그러나 신작 대두의 순 판매량은 31만 2,800톤으로 두 수치 모두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. 이와 별도로, 미 농무부는 일일 보고 시스템을 통해 2021/22 마케팅 연도에 미지의 목적으로 미국산 대두 13만 2천 톤을 민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.

관련동향

- 걸프 밀, 옥수수 및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대부분 안정세를 유지.
- 29일 국제유가는 미국 석유재고 감소 영향 지속, 이란 핵 협상 교착상태, 미 달러 약세 등으로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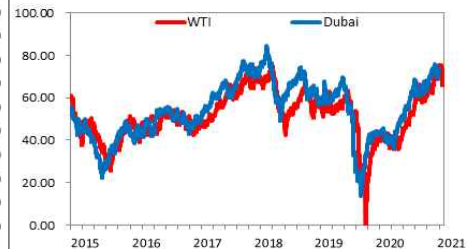
곡물 수출가격 (FOB)



환율



국제유가



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	
곡물수출가격 (FOB)	밀	279	▲1.8%	환율	원/달러	1,154.8	▲0.4%
	옥수수	278	-		달러/유로	1.1846	▲0.2%
	대두	561	▲0.9%	국제유가	WTI	73.62	▲1.7%
	쌀	390	▼0.3%		Dubai	73.68	▲1.2%
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2) 기준일은 '21.07.28(수출가격), '21.07.29(환율), '21.07.29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